光日春秋

나무와 어린이와 대통령

김 용 택
시인

나는 우리나라가 나무를 '제일로' 사랑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오래된 나무들은 더 오래 살도록 보호해 주고 어린 나무들은 나라의 곳곳에서 자기가 사는 땅을 기름지게 할지니, 잘 자라도록 돌보고, 길을 내거나 집을 지을 때, 나무 한 그루에 대해 오래 생각하고 오래 토론하고 그 나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 나무의 운명을 결정하면 좋겠다.

오래된 나무들이 공사판에서 함부로 뽑히고 찢기고 잘린 채 하얀 속살을 보이며 나자빠져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부아가 치밀 때가 많다.

내가 다니는 강변길에서 자란 기세가 좋거나 장래가 엿보이는 나무들을 나는 가꾼다. 칡넝쿨같이 강한 넝쿨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걷어주고, 웃자란 가지들을 다듬어 준다.

인간에 대한 모독이 인간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얽힌 사연들을 함부로 내팽개치는 인간들의 무심하고 무지한 행위가 어떤 범죄 행위보다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다. 이런저런 공사로 마을 강변에 오래 버티고 있던 나무와 바위들이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다.

나무도, 오래된 돌들도 호적을 만들면 어떨까. 마을의 나무나 강변의 큰 바위들을 관리하는 나라의 '관리부서'가 있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바위를 보호하기 위해, 그 나무를 돌아가고 멀리 구부러진 길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름다움을 지키는 나라다. 길이 조금 구부러지고 공사에 돈이 조금 더 든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나무 한 그루 때문에 길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본 어떤 어린이가 "아빠, 저 나무 때문에 이 길을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거야?"하고 물을 때 아빠는 무슨 말을 할까,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질문과 대답이 그려진다.

우리나라가 어린이들을 '제일로' 생각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나는 어렸을 때 마을 어른들에게 네 가지 말을 들으며 살았다.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사람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싸우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다. "냅둬라, 애들은 싸워야 큰다". 싸우면서 아이들은 자잘못을 스스로 알고 뉘우치고 깨달아 자기를 고치고 바꾸어 마을 사람들과 생각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했다. '남의 일 같지 않다'고 가르쳤다. 마을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이 다 내 일 이었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고 가르쳤다.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다 그 어린이의 선생이었다.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막말하면 안 된다고 나는 마을에서 배웠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가꾸겠다는 말은 안 하고, 입을 열었다 하면 험한 막말로 남이나 헐뜯고, 초등학교 앞에서 엄청 난 숫자의 어른들이 모여 고함을 지르며 막말하며 다툰다. 어린이들이 듣고 보고 배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다니고 나라의 일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되면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좋은 사람은 '나랏일'과 '나랏돈'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무도 돌도 어린이도 힘이 없다. 어른들의 생각대로 배워 세상으로 나간다. 나무와 어린이들이 저 5월의 푸르른 산처럼 바람을 타고, 강물처럼 출렁이며 흐르도록 해야 한다. 연두색에서 초록의 건너가는 앞산에 꾀꼬리가 날아와 운다. 저 산 아래에서 우리 사람이 해야 할 말을, 할 짓을 생각해 보자. 멋진 어른은 없는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어른들은 없는가. 대통령이 되면, 의원이 되면, 도지사 군수 시장이 되면 뭐 하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좋은 대통령, 좋은 공무원이 되어야 하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 높은 곳(?)을 차지한 사람들의 파렴치함이 나라의 기강과 인간의 근본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나라의 선생님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은 다 대통령 탓이다. 저 산의 나무들과 저 하늘의 별들과 강가의 돌과 저 학교의 어린이들과 우리 국민에게 인간 교육을 담당할 '선생님'이 될 자신 없으면 지금 당장 그만두라.

종교칼럼

솜사탕같은

중 현
광주 증심사 주지

곰인형은 귀엽다. 모든 곰인형은 만들어질 때부터 의도적으로 귀엽게 만들어졌다. 생긴 것도 귀엽지만, 솜이 들어가서 푹신푹신하고 표면은 부들부들하다. 이런 촉감은 눈으로 볼 때의 귀여움을 훨씬 뛰어넘는 매력 포인트다. 곰인형은 인간이 생각하는 귀여움의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과하게 커다란 얼굴, 조막만한 손과 발, 덩치에 비해 짧은 팔과 다리, 매우 부드럽고 따뜻한 피부.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곰인형을 애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질 법한 생각이다. 곰인형의 입장이라면, 솜방망이처럼 타격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신의 신체 조건 때문에 절망할지도 모른다. 제아무리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두르고 온몸으로 들이 받아도 상대방에게는 조금의 고통도 주지 못한다. 입은 있으나 소리를 낼 수 없고, 주먹은 있으나 휘둘러보아야 아무 소용 없다. 끙끙 앓으며 혼자 속으로 화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

곰인형이라고 해서 평생동안 인고의 세월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곰인형의 무기는 인간들을 사로잡는 매력이다. 아마 곰인형 자신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곰인형은 자신의 매력으로 타고난 무력함을 상쇄시킨다. 이 역시 어린아이로부터 빌려온 특징이다. 모든 동물들의 어린 생명들이 귀여운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제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앳된 이 생명체들은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없다. 그래서 최대한 귀엽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 모든 새끼들은 귀엽다. 귀여우면 귀여울수록 보호자들은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붓는다. 유아들의 귀여움은 자신들의 보호자를 유혹하여 무력한 자신을 지키게 하려는 전략의 산물이다.

정반대로 세상에는 선인장같은 사람도 있다. 온 몸을 뒤덮고 있는 가시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막이자, 뛰어난 공격무기이기도 하다. 그 누구도 선인장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설령 선인장 본인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도 그의 가시가 다른 존재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른 존재들은 그를 기피하고 멀리 한다. 항상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있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줄 이는 아무도 없다. 선인장은 날카로운 가시 덕분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대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다. 심지어 지나친 애정은 선인장을 죽이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애정 때문에 선인장에게 과하게 물을 주고, 그 결과 선인장은 죽고 만다. 설령 선인장 자신은 주변의 사랑을 원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독이 된다. 그렇게 선인장은 진화하였다. 사람들은 선인장을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

곰인형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다. 선인장 유형에 비하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매일 반복하며 살아간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몽땅 의지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인장 유형의 사람들은 외로움에 쩔어 외로운지도 모르는 채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힘들어하면서도 사람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너무나 힘들어 홀로 떨어져 나오면 외로움이 엄습한다.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면 예전의 고통이 그대로 되살아난다.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다보면 또다시 홀로 된 자신을 발견한다. 외로움이라는 질병에 서서히 병들어 간다. 시계추처럼 반복되는 삶이 끝없이 이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인장과 곰인형 사이의 어중간한 어디쯤에서 방황하며 살아간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미로에 갇힌 생쥐처럼 헤어나오지 못한 채 빙빙 맴돌고 있다. 한걸음만 떨어져서 상황을 바라보면 문제가 보인다. 문제가 보이면 답도 보인다.

세상에는 곰인형이나 선인장같은 존재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솜사탕 같은 존재도 있다. 솜사탕은 자신의 몸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설령 녹아 없어지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내가 딱히 어떤 모양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나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다. 늙고 병든 육신이든 젊고 건강한 육신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육신에 대한 애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솜사탕같은 사람으로 살 수 없다. '나'라는 이름의 감옥에는 창살도 높은 벽도 없다. 다만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육신에 발목 잡히지 않은 것이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길이다. 새소리가 정겨운 봄날의 아침이다. 참 고마운 날들이다.

기 고

청년 유출 증가 대응, 청년 여성 삶에서 찾아야

김 경 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최근 광주시는 청년인구 유출 증가와 출생율 감소라는 이중의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광주 지역 청년 순유출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43%에서 2023년 71%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2024년 기준, 광주 청년인구는 약 38만명으로 매년 약 1만명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광주 지역 합계출산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21년 0.89명에서 2023년에는 0.70명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서울(0.58명), 부산(0.6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출산율이다. 특히 2023년 광주의 조출생율은 인구 1000명당 4.3명으로, 전년 대비 0.9명 감소하여 전국 최고 감소율을 보였다. 광주시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 인구 유출 증가와 저출생 문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 지역 청년들의 삶을, 특히 출산의 주체인 청년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먼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결혼을 의무이자 당위로 여겼다면 현재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 여성들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대 여성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08년 52.9%에서 2022년 27.5%로 급감하였다.

또한 전통적 가족 개념인 결혼과 출산을 매개로 한 혈연 중심의 가족만이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 비혼모, 비혼 동거, 1인가구, 비혈연 가족 등이 등장하고 있고 문화적 수용력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희생과 강압이 아닌 평등과 자율을 지향한다.

청년 여성들이 결혼과 전통적 의미의 가족 구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요인에 있다. 고용 불안정, 성별 임금격차, 치솟는 주거비용, 육아에 대한 부담 등은 결혼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높인다. 게다가 여전히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이중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한 가정폭력, 교제폭력, 이별폭력 등 여성 인권 문제 역시 청년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은 '결혼=출산=정상가족'이라는 정책적 기조를 넘어서서 개인의 삶의 다양성과 가족 형태의 다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결혼 및 가족 정책의 재정비, 성평등한 사회구조 마련,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및 법적 보호 강화, 청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및 복지, 인권 정책 확충 등이 필요한 것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올해 20~30대 청년 여성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주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요인은 다양하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낮은 임금 수준, 교육과 경력개발 기회의 차이, 문화 및 사회적 인프라의 불균형, 주거와 정주 여건 열악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큰 요인은 학업과 취업, 정주 여건이다. 정주 여건 중에는 육아와 돌봄 인프라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광주 지역 청년들이 광주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주거, 육아와 돌봄의 어려움이 없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다.

청년인구 유출율을 줄이고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단순한 인구 통계 대응이나 성인지적 접근 없이 구조적 불평등을 묵인하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정책적 전략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청년들이 광주에서 희망을 찾고 광주에서 살고 싶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청년 삶의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社 說

유급 엄정하게 처분하되 '트리플링'도 대비해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끝내 수업 복귀를 거부해 유급과 제적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1만 9000여 명의 의대생 가운데 1만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제적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율은 30%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대와 조선대는 복귀율이 더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 수는 1200여명 수준인데 실제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두 학교 합쳐 2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생 대비 복귀율이 전남대는 20%, 조선대는 10%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전국 평균 복귀율보다 낮아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2026 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당부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의정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의대 증원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담보로 한 의사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들의 비타협적인 선동에도 원인이 있다.

정부는 다시 한번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급이나 제적은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 무너진 정부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정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 의료계만 특혜를 준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무엇보다도 의대생과 의료계에 만연한 특혜 기대심리와 이기주의를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원칙으로 대응하되 대규모 유급에 따라 내년에 세 학번(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현실화 되는 만큼 지금부터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결원에 따른 편입학 문제도 잡음이 없도록 해야 의정 갈등의 또 다른 빌미를 주지 않을 것이다.

노인 10명 중 1명 치매…돌봄시스템 강화하길

가정의 달 5월은 가족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기간이다. 그중에서도 8일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와 무한한 자식사랑을 되새겨 보는 날이다. 부모 가운데 치매 환자라도 있다면 어버이날의 의미는 일반 가정보다 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육박한다. 나이들수록 발병률이 올라가는 치매의 특성상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전남은 2024년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추정 치매환자가 5만 6693명으로 유병률이 12.2%에 달한다. 광주도 치매환자 2만 3477명에 유병률이 10.3%로 광주·전남 모두 65세 이상 노인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

치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돌봄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생기면 가족 일원이 돌보는 단계를 거쳐 증상이 심해지면 요양 병원이나 시설로 가게 되는데 가족 돌봄 기간은 평균 27.3개월이다. 돌봄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는 물론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간병 비용은 집에서 돌볼 경우 1733만원, 시설·병원 이용시 3138만원으로 웬만한 가정 경제라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총 자산이 154조원이라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고령 치매 환자 자산을 전수조사한 것인데 치매환자들이 보유한 이른바 '치매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치매는 이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모두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돌봄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광주·전남만 하더라도 치매안심센터의 돌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자체들은 다시 한번 돌봄 시스템을 점검하길 바란다.

無等鼓

열정과 냉정 사이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열정'일 것이다.

그의 축구 열정은 누구나 인정한다. 열정에 저녁을 거르는 날도 많았다. 밥을 먹으면 노곤해지는 터라 그 시간에 운동하고 샤워를 하면서 전술 연구를 한다. 훈련장에 드론을 띄워 훈련 영상, 경기 영상을 분석해 승리 확률을 높인다. 영상 편집도 직접 한다.

그라운드에서도 열정적이다. 경기장에선 광주FC 벤치 뒤 자리가 가장 인기가 많다. 팬들은 이 감독이 쉴 새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경기를 지휘하는 모습에 열광한다. 선수들도 감독의 열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른다. 감독의 열정과 선수들의 투지가 만나면서 광주FC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다. 덕분에 이 감독은 '슈퍼스타'가 됐다.

하지만 넘치는 열정이 가끔씩 논란을 낳기도 한다. 사우디 알힐랄과의 ACLE 8강전에서 앞서 그는 '개 바르거나 개 발리거나'라는 경기 전망을 내놓았다. 이 감독은 공격 축구를 강조한다. 골을 넣어야 이기고 골을 넣는 게 팬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최강' 상대와의 승부에서도 '광주축구'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모 아니면 도가 될 수밖에 없는 '정면 승부'를 예고한 것이었지만 상대에겐 도발이었다.

지난 5일 어린이날 김천상무전 승리를 지휘하고도 그는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전반전이 끝난 뒤 그라운드로 달려간 이 감독은 선제골을 넣었던 오후성을 거칠게 밀쳤고, 이 장면이 생중계됐다. 경기 후 이 감독은 "공간이 있는데 편하게 받으려고 해 화가 났다. 급했다. 피드백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논란의 장면을 설명했다. 팀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한 그는 책임도 이야기하기는 했다. 오후성도 SNS에 긴 글을 올려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선수단 내 헤프닝이었지만 이날 경기장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6238명이 입장했다. 지도자에게는 열정 만큼이나 필요한 게 냉정이다. 냉정하게 조직을 이끌면서 조직을 위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냉정이 더해질 때 열정이 더 빛날 수 있다.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